

<표> '11년 1분기~'12년 3분기 게임산업(상장사별) 수출액 변동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수출액					2012년 수출액			
	1분기 (전기대비)	2분기 (전기대비)	3분기 (전기대비)	4분기 (전기대비)	2011년 (전년대비)	1분기 (전기대비)	2분기 (전기대비)	3분기 (전기대비)	3분기 (전년동기)
NHN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엔씨소프트	256.0	224.9	218.0	261.2	960.1	211.1	194.5	169.2	-22.4%
네오위즈게임즈	688.1	676.5	766.4	745.7	2,876.7	931.7	808.3	820.4	7.0%
CJ E&M	28.4	98.9	75.6	79.5	282.4	101.3	84.7	126.1	66.8%
게임하이	7.1	8.2	9.9	23.6	48.8	11.4	10.8	13.1	32.3%
액토즈소프트	220.2	225.1	241.6	233.6	920.5	226.2	175.9	177.0	-26.7%
웹젠	69.5	82.3	80.4	97.6	329.8	88.0	82.3	96.7	20.3%
와이디온라인	67.8	60.8	61.6	57.8	248.0	51.6	53.0	36.5	-40.7%
이스트소프트	17.2	20.9	23.4	36.3	97.8	20.6	18.9	22.2	-5.1%
한빛소프트	25.4	50.4	41.2	46.7	163.7	34.9	32.4	28.1	-31.8%
컴투스	25.3	40.4	54.8	55.7	176.2	64.5	140.8	160.3	192.5%
엠펜	49.4	45.1	50.1	91.3	235.9	55.1	51.1	52.4	4.6%
드래곤플라이	57.2	45.6	39.9	44.9	187.6	44.0	35.2	33.8	-15.3%
와이앤케이	10.9	11.0	8.1	11.0	41.0	8.9	8.0	11.8	45.7%
코리아	15.4	18.7	14.8	69.0	117.9	34.4	31.2	24.5	65.5%
제이씨	22.1	19.8	18.1	16.2	76.2	15.8	11.5	10.6	-41.4%
엔터테인먼트	21.4%	-10.4%	-8.6%	-10.5%	2.0%	-2.5%	-27.2%	-7.8%	
바른손게임즈	0.0	0.6	0.0	0.0	0.6	0.0	0.0	0.0	-
소프트맥스	-	-	-100.0%	-	-65.5%	-	-	-	
조이맥스	54.9	47.7	42.3	55.0	199.9	43.4	37.2	41.2	-2.6%
게임빌	12.1	38.3	25.1	31.8	107.3	64.9	66.4	58.6	133.5%
위메이드	27.9	26.6	21.5	833.9	909.9	230.1	192.6	204.1	849.3%
엔터테인먼트	9.0%	-4.7%	-19.2%	3778.6%	632.6%	-72.4%	-16.3%	6.0%	
합계	1,654.9	1,741.8	1,792.8	2,790.8	7,980.3	2,237.9	2,034.8	2,086.6	16.4%
	5.7%	5.3%	2.9%	55.7%	42.2%	-19.8%	-9.1%	2.5%	

- 게임 '12년 3분기 수출액은 약 2,0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2.5% 상승. '11년 1분기 이후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콘

텐츠산업 수출액 전반을 견인

- '12년 3분기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59.6%로 '11년 3분기 (67.3%)에 비해 7.7%p 하락
- '12년 3분기 수출액 중 네오위즈게임즈, CJ E&M 게임부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대형업체는 전년동기대비 7.0%, 66.8%, 849.3% 증가. 이는 스마트게임 및 대형온라인게임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인. 대형업체 중 액토즈소프트는 '10년 1분기부터의 전년동기대비 감소가 이어지다가 '11년 3분기 이후 증가. '12년 2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다소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6.7% 감소
 - ※ 엔씨소프트의 수출액은 '11년 2분기부터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2.4% 감소
- 중소형 업체 중에서 게임하이, 웹젠, 컴투스, 엠게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게임빌 등 6개 업체는 '11년 4분기 이후 지속적인 스마트게임 등 신작 및 흥행 게임들의 해외 수요증가에 따라 '12년 3분기 수출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높은 성장
 - ※ 컴투스 및 게임빌은 모바일 전문게임업체이며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확대 등 스마트게임수요 인프라 확대 및 게임이용 패러다임 변화로 '11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수출증가 기조를 이어감. 컴투스 및 게임빌의 '12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2.5%(248.5%)¹⁾, 133.5%(73.4%) 증가
 - ※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및 게임하이의 수출액은 '12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65.5%(66.8%)²⁾, 32.3%(31.7%) 증가
- 게임의 수출은 전분기대비 '10년 2분기부터의 상승세가 '11년 4분기까지 이어지다가 '12년 1분기 이후 하락을 보였으나 '12년 3분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 향후 게임 콘텐츠 소비에 부응하는 스마트기기의 지속 출시 등이 수요적 측면에서 게임시장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한 게임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해외 실적 지속 상승 전망
 - ※ '10년 3분기에서 '12년 2분기까지 전분기대비 각각 2.3%, 12.1%, 5.7%, 5.3%, 2.9%, 55.7% 상승, 19.8% 하락, 9.1% 하락

1) 2012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

2) 2012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

- 게임 '12년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6,3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
 - 네오위즈게임즈는 '12년 3분기누적 수출액의 경우 약 2,5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
 - 컴투스는 '12년 3분기누적 수출액의 경우 약 3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3.4% 증가
 - 게임빌은 '12년 3분기누적 수출액의 경우 약 19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5% 증가
 - 세이씨엔터테인먼트는 '12년 3분기누적 수출액의 경우 약 9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3% 증가

<그림> '11년 3분기~'12년 3분기 게임(상장사) 수출액 변동

(단위 : 억원, %)

